

# LOCAL “볼거리 풍성한 가을여행은 영암이 제격”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 무안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개최 오롱 신도시 주민 500여명 참여

무안군은 최근 오롱공원에서 '2025 오롱신도시 주민과 함께하는 무안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무안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해 오롱 신도시 주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장터에는 로컬푸드 생산자와 초청 셀러 등 13개 업체가 참여해 총 600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송편 만들기 등 무안 캐릭터 그리기 등 체험과 추억의 뽑기 등 이벤트 운영으로 아이들과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오롱 신도시에서 처음 열린 직거래 장터는 점에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은 “지역 농산물과 가공품을 직접 접할 수 있어 유익했다”며 “앞으로도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역 농산물과 가공품을 알리고, 주민과 생산자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는 25일, 11월 8일, 11월 22일에도 장터가 이어지는 만큼 1차 운영에서의 성과와 보완점을 반영해 더욱 알차고 주민이 체감하는 직거래 장터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성명준 기자 tjdaudwms@gwangnam.co.kr

### 군, 내달 중순까지 ‘가을 관광 집중기간’ 운영 즐길거리·볼거리·쓸거리 결합 체류상품 마련

영암군이 추석 연휴와 가을 관광객 유치를 위해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가을 관광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머무는 도시,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로 도약을 목표로 추석과 가을을 맞아 즐길거리·볼거리·쓸거리를 결합한 축제를 포함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우선 오는 18일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는 ‘남도 명인·명장 국악의 향연’이, 19일에는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영암모터피아 F1 전국 마라톤대회’가 열린다.

25일과 11월 29일에는 영암읍 달맞이공원에서 청년문화축제 ‘영암 로포데이’, 3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월출산기찬랜드의 ‘월출산 국화축제’, 영암읍문화체육



영암읍 달맞이축제

장과 군서면 구림마을의 ‘제2회 목재누리 페스티벌’과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가 동시에 진행된다.

11월 8일에는 왕인박사유적지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영암군 편’ 녹화가 진행되며, 11월 14~15일 마한문화공원 ‘마한역사문화제’가 이어진다.

11월 29~30일에는 영암실내체육관 등에서 ‘제50회 영암군민의날’이 개최된다.

군은 관광객 참여 확대를 위해 영암여행 1+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인스타그램·블로그 등에 여행 후기를 올리고 필수 해시태그 ‘#영암여행’, ‘#영암여행1+1’, ‘#영암축제’를 달면 자동 응모되는 이벤트 참여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조회 수·좋아요·댓글·공유 수 등을 바탕으로 우수 후기도 선정해 최대

20만원의 월출페이를 지급한다.

동시에 영암 소비왕 관광객에게는 ‘최다 소비상’ 수상, 3대 이상 가족사진을 인증하는 ‘가족여행 이벤트’ 등 참여형 이벤트도 병행한다.

우승회 군수는 “전국 관광객들이 가을을 영암에서는 열리는 풍성한 문화축제 속에서 맛과 멋, 흥을 느끼며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며 “영암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상상형 관광 모델을 정착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영암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현창국 기자 hck1342@

### 곡성군민과 소통 ‘유난히 좋은 날’ 운영 재개

#### 군, 찾아가는 행정 강화

곡성군은 최근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과 공감하는 현장 소통 프로그램 ‘유난히 좋은 날’을 재개했다.

군은 오곡면 송정·압록1·2구·봉조1·2구, 곡성을 신기1·2구·장산·2구·학정2구 마을회관을 각각 방문해 지역 현안과 생활 민원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유난히 좋은 날’은 지난해 12월 읍과 면을 시작으로 매월 2회, 읍면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진행해 온 곡성군의 대표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 군에서 주민을

찾아가 대화하고 불편 사항을 청취·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흑서기 동안 2개월간 정비 기간을 거쳐 이번 9월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

군은 건의된 마을회관 내부 및 경관 정비, 가정역 주변 관광지 활성화 방안 마련, 김나무 냉해 피해 조사 등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처리 여부를 개별 안내하고, 세심히 관리할 예정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바쁜 수확기에도 자리를 함께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곡성군은 최근 오곡면 송정·압록1·2구·봉조1·2구, 곡성을 신기1·2구·장산·2구·학정2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과 공감하는 현장 소통 프로그램 ‘유난히 좋은 날’을 재개했다.

## 신안, 호우 피해 복구 등 민생회복 ‘총력’

### 재난지원금 68억 추석 전 전액 신속 지급

신안군이 여름철 극한 호우 피해를 복구에 박차를 가하는 등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군에 따르면 지난 7~8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 주택, 소상공인에게 68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추석 연휴 전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는 농작물 4409ha, 주택 61동, 소상공인 9곳 등 총 3314세대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6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금을 포함한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도록 했다.

특히 피해가 극심했던 지도, 임자, 자은, 흑산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국비를 추가 확보, 군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 복구와 지

원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재해위험지역 정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독려,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등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대민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집중호우로 고통받는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에 최선을 다했다”며 “추석 연휴에도 군민 안전과 생활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성명준 기자 tjdaudwms@gwangnam.co.kr

### 화순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력 투구 재정 확보 계획 등 수립·군민 서명운동 전개도

화순군과 화순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힘을 모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촌 지역 주민에게 무조건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개 군을 선정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은 농촌 고령화, 인구 감소, 청년 유출 등으로 지역 공동체가 급격히 쇠락하고 있기에 기본소득 제도를 통해 ‘살고 싶은 농촌, 돌아오는 화순’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유지 의지를 밝혔다.

군은 이번 신청을 위해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기본소득 대상자 관리 기법, 재정 확보 계획, 지역 공동체의 참여 전략 등 실행력 있는 계획을 담은 사업 제안서를 준비 중이다.

화순군의회도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유지 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구북규 화순군수(오른쪽)와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

오형열 의장은 “현재 군민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화순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북규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를 위한 전환점이자, 공동체 회복의 시작이다”며 “화순군이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을 지키고, 군민과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사례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장흥, 건강·치유 미래 제시

2025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최근 ‘건강과 치유의 미래’를 제시하며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막을 내렸다.

1일 장흥군에 따르면 안양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린 올해 박람회는 ‘치유, 통합의학으로 답하다’란 주제로 열렸다.

전남도와 장흥군이 주최하고 통합의학박람회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박람회는 전국 70여개의 대학병원, 의료기관, 기업 등이 참여했다.

통합의학적 상담과 진료뿐만 아니라, 심신을 재충전하도록 한층 강화된 다채로운 힐링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해외 의료기관 유치 확대, 노벨문학도시 관련 콘텐츠 추가, 박람회장 외부 치유와 체험공간 조성 등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전남도 내 22개 시·군 보건소가 참여해 건강정보를 제공한 건강증진관에서도 다양한 건강 체험이 이어졌다. 송타라피공원에서 산림치유사와 함께하는 어싱길 맨발걷기, 명상 요가 등 참여형 체험도 호평을 받았다.

30분 간격으로 운행한 셔틀버스도 관람객들의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TONYMOLY® street culture

즐거움 한가위 보내세요

## 안전보습 몬스타수분

추추추

EWG Green 등급 원료 처방  
100% 발효녹차 사용

THE CHICK CHOK GREEN TEA Water Cream  
CONTAINS 100% PURE GREEN TEA FERMENT EXTRACT  
Instead of distilled water  
TONYMOLY

토니모리 더촉촉 그린티 수분크림